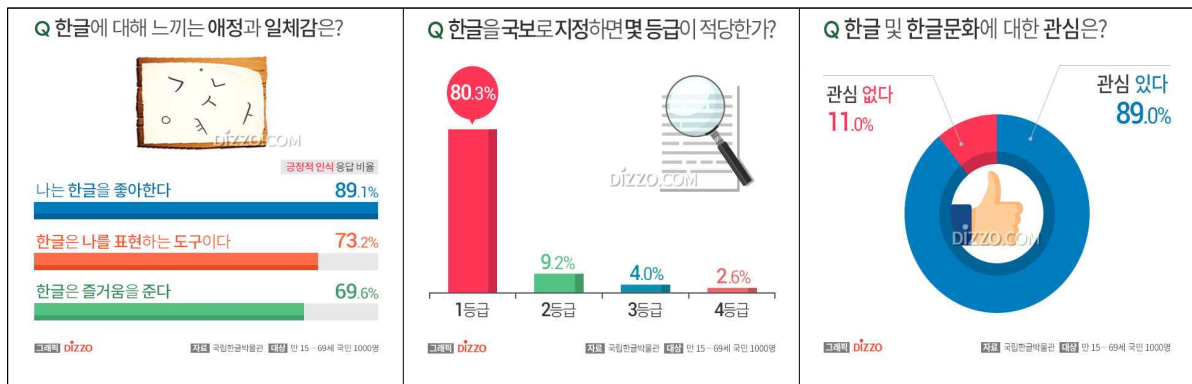


# 한국인이 쓰지 않는 한글과 잘못 쓰는 한글에 대한 연구

이승하(시인 · 중앙대 교수)

## 1. 한국인의 한글 사랑

대한민국 사람치고 10월 9일이 한글날임을 모르는 이가 없을 것이다. 1940년 경상북도 안동에서 발견된 『훈민정음』 해례본 원본의 말문(末文)에 보이는 “正統十一年九月上澣”을 양력으로 환산하면 10월 9일이 되어, 이날을 한글날로 정했다. 1949년부터 공휴일로 지정되었고, 1982년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국경일에 포함되었다. 공휴일이 많아 경제활동에 지장이 있다는 재계의 여론에 따라 1991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되었으나 공휴일 지정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었다. 2005년에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의해 국경일로 승격되었다. 2012년 12월 28일 개정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해 공휴일로 다시 지정, 2013년부터 공휴일로 지켜지고 있다. 자국의 언어를 창제(創製)하여 쓰기 시작한 날을 기려 국경일로 삼은 전 세계에서 유일한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그림 1] 한글과 한국문화 의식조사 (2019, 국립한글박물관)

국민의 한글에 대한 애정은 실제 설문조사에서도 드러난다. 2019년 국립한글박물관에서 만 15세부터 69세까지의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한글과 한글문화 의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나는 한글을 좋아한다”라고 말한 이가 전체의 89.1%, 한글을 국보로 지정하면 1등급이 적당하다고 말한 경우가 80.3%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인 대부분이 한글에 대한 높은 자긍심과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나아가 중요한 가치를 지닌 문화유산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국제PEN 한국본부는 2021년 11월 2일부터 4일까지 제7회 세계한글작가대회를 개최하였다. 제5회까지는 경주에서 개최했지만 2020년과 2021년, 코로나 사태 때문에 대규모 국제대회 개최가 불가능해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비대면 온라인으로 행사가 진행되었다. 집행부에서는 지혜를 발휘해 온라인 국제 화상회의, 유튜브 생중계, 국내외 작가 및 학자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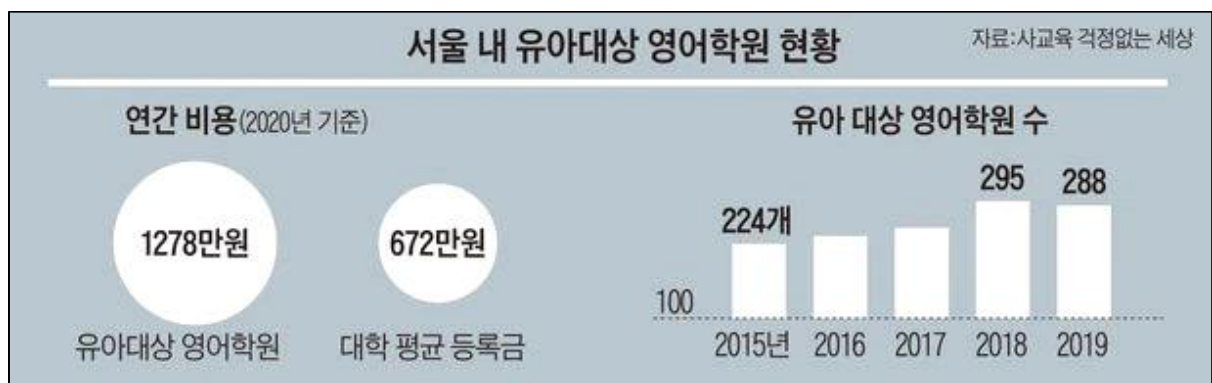
의 특별강연, 다양한 주제발표와 그에 따른 토론을 원활하게 진행하였다. 해외동포작가가 바라본 한글과 한국문학 디아스포라와 외국인 시 낭송 등 이색 프로그램도 아주 멋진 행사였다. 이 행사의 대주제는 ‘한글문학의 세계화’였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였다.

제7회 세계한글작가대회의 주제발표 중 한글문학의 방향과 한글교육, 세계 속의 한글교육 현황과 연구 동향, 세계문학에 견줄 수 있는 한국문학은 가능한가, 변화하는 세계와 한글문학의 세계화, 한글문학 해외소개 현황과 전망 같은 주제는 BTS 노래 여섯 곡의 빌보드 순위 1위, 아카데미상 작품상을 비롯한 다수의 수상, 드라마 ‘오징어게임’의 영향력 등과 함께 우리가 한글을 쓰고 있다는 것에 대해 뿌듯한 자부심을 느끼게 했다.

교보문고가 최근 5년간 해외배송으로 주문한 도서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코로나 직후 재작년 주문량이 늘어난 것을 시작으로 작년까지 주문량의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교보문고에 따르면 2020년은 전년대비 85.8%의 증가세를 보였고 2021년에는 전년대비 17.5% 증가하며 역대 최대 판매량에 도달하였다. 이는 한국문화에 대한 관심이 한국문학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증거이자, 우리 스스로가 한국어와 한국문학에 관심을 가지고 이를 키워나가야 한다는 의지를 심어준다.

특히 작년의 세계한글작가대회는 국내 6개 대표 문학단체에서 젊은 문인들을 발표자와 토론자로 보내는 화합의 정신을 보여주었다. 앞으로 문학단체들이라도 한글의 우수성을 우리 사회 각계각층에 전파하는 심부름꾼의 역할을 하면 좋을 것이다. 아무튼 작년 대회는 국내외 유명작가, 한글학자, 문인 56명이 참가해 한글의 세계화, 한글문학의 세계화에 대해 확인하는 무척 뜻깊은 시간이었다. 그런데 한글날을 만들어 기념하고 문학단체에서 한글과 한국문학의 세계화에 열과 성을 다한다고 하여 이 땅의 영어 학습 열풍과 한글 오용이 사라질까?

## 2. 한국인의 영어 사랑



[그림 2] 유아대상 영어학원 현황 (2020, 시민단체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국내의 영어 교육 열풍은 그 기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 아니, 오히려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다. 2020년 11월 14일자 조선일보 기사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에서 영어유치원을 보내기 위해 엄마들의 ‘초 단위 입금 전쟁’이 벌어졌다고 한다. 어릴 때부터 아이를 영어에 최대한 노출시키기 위해 영어유치원에 보내려는 것인데, 그 수가 워낙 많다 보니 입금한 시

간의 초 단위까지 순서를 따져 입학자를 선정했다는 기사를 보며 큰 충격을 받았다. 모국어를 자연스레 배우고 친구들과 신나게 뛰어놀아야 할 만 3세, 4세 아이들이 발음도 명확하지 않은 입으로 영어 문장을 외우고 있는 것이 정말로 ‘올바른 교육’인지에 대한 의문이 들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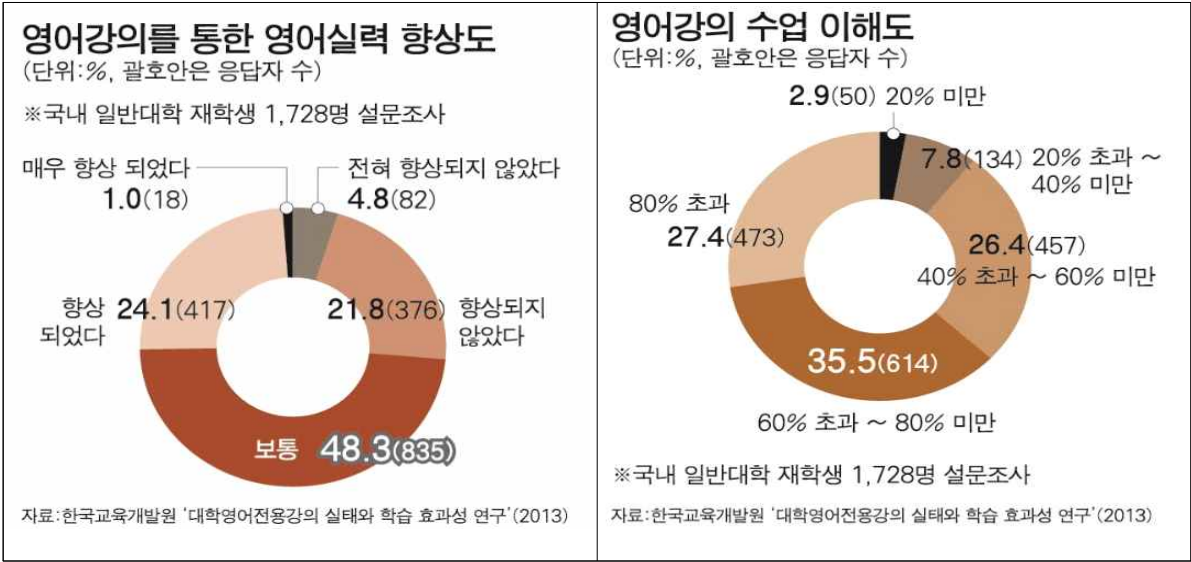
2020년 기준 유아 대상 영어학원비는 연간 1,278만 원에 달하였다. 당시 4년제 대학의 연평균 등록금과 비교했을 때 1.9배에 가까운 금액이다. 심지어 강남·서초 지역에 자리잡고 있는 유명한 영어유치원의 경우, 월 2백만 원이 넘는 학원비를 받는다. 벌써 2년 전의 조사이니 물가상승률이 날로 올라가고 있는 지금은 더 올랐을지도 모르겠다. 금액 인상에 젊은 부모들은 굴하지 않는다. 오히려 영어유치원에 보내지 못한 부모가 아이에게 교육을 제대로 지원해주지 못해 미안하다고 말하는 모습을 보며, 이 나라의 ‘영어 사랑’은 어디까지 갈 것인지 심각한 걱정이 된다. 이는 교육 현장에서만 나타나는 문제는 아니다. 문단에서도 한글과 영어를 공용어로 쓰자고 줄기차게 주장한 소설가가 있으니 복거일이다. 그는 『영어를 공용어로 삼자』라는 책까지 펴냈다. 그 책에는 주로 이런 내용이 나온다.<sup>1)</sup>

- 1) 영어가 국제어로서 가치가 가장 높다.
- 2) 대부분의 민족어는 몇 세대 안에 일상생활에서 쓰이지 않는 박물관 언어가 될 거다.
- 3) 모국어와 외국어를 관장하는 뇌의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영어를 ‘외국어’로 배우는 데는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다.
- 4) 유대인들의 역사에서 알 수 있듯이 사람들은 필요에 따라 모국어를 바꿀 수 있다.
- 5) 영어를 자유롭게 구사하지 못하면 세계무대에서 경제·사회·문화적 손해가 크기 때문에 영어를 공용화하고 나아가서는 모국어화할 수밖에 없다.

그의 주장은 김영삼 대통령의 ‘세계화 정책’ 중 ‘영어를 어릴 때부터 공부하자’는 정책에 발맞추어 일파만파로 퍼져갔다. 복거일은 『국제어 시대의 민족어』를 통해 ‘영어공용론’을 다시금 제기하였다.<sup>2)</sup> “관공서의 공문서 등 일상생활에서 한국어와 영어를 공용하게 쓰자”는 복거일의 주장은 당시 엄청난 파장과 논란을 불러일으켰고, 그 후 ‘영어공용론’에 관한 찬반양론은 다람쥐 쳇바퀴 돌리듯 계속되고 있다.

---

1) 복거일, 『영어를 공용어로 삼자』, 삼성경제연구소, 2003. 15~77쪽.  
2) 복거일, 『국제어 시대의 민족어』, 문학과지성사, 2012. 136~158쪽.



[그림 3] 대학영어전용강의 실태와 학습 효과성 연구 (2013, 한국교육개발원)

21세기로 접어든 이후 대학교에서는 어떤 과목이든지 간에 영어로 강의를 하면 강사료도 더 많이 받고 평가점수도 더 높게 받는다. 영어 강좌의 과목 수가 그 학과를 평가하는 지표에서 아주 높은 점수를 받기 때문에 거의 모든 대학의 학과에서 이론은 영어 강좌로 바꿨다. 발표자가 재직하고 있는 중앙대학교 문예창작학과에서도 ‘번역론 실습’ ‘번역 워크숍’ 같은 과목을 미국에서 오래 살다 온 교포 소설가에게 맡겼다. 각 학과마다 영어 강좌의 수가 낮으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았다. 교육부에서 영어 교육을 워낙 강조하니까 각 대학 국어국문학과에서 영어 강좌를 개설하는 웃지 못할 해프닝까지 벌어졌다.

그러나 정부와 사회가 강박적으로 영어 강좌를 늘리는 것에 비해 막상 교육 현장에서 그 효과는 크지 않다. 국내 일반대학에 다니는 학생 2,444명(미응답자 포함)을 대상으로 ‘대학 영어 전용 강의 실태와 학습 효과성’에 대해 조사한 결과, 영어강의를 들은 학생 중 내용의 60% 미만만 알아들었다는 학생이 37.1%를 차지했다. 이는 수업을 듣는 학생들조차 대부분의 영어 강좌가 졸업을 하기 위한 필수 이수 과목이기에 듣는 것이지, 수업의 내용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는 방증이다. 즉 학생들도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수업을 듣고 있는 것이 왜곡된 영어 교육의 현장 모습이다.

물론 학생들이 우수한 외국어 능력을 갖추는 일은 바람직한 일이다. 국제적인 경쟁력도 키울 수 있고 세계를 무대로 뽐어나갈 수 있으니 말이다. 그러나 기본적인 학문적 특성조차 고려하지 않고, 교육 현장의 당사자인 학생과 교수의 실태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무조건적으로 영어 강좌를 들으라고 강제하는 것은 학문 종속에 가깝다. 따라서 영어 수업이 진행되더라도 학과와 개별 과목의 특성을 면밀히 살피고, 내부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생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수업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영어를 잘해야 사회가 받아주기 때문에 대학 재학 중 어학연수, 교환학생, 해외 단기유학 등이 다년간 붐을 이루었다. 몇 년 동안 여름방학 때 초등학교 아이들이 대학교 캠퍼스에 와서 방학특강 수업을 했는데, 이른바 ‘영어 캠프’였다. 그 캠프 안에서 우리말을 쓰면 안 되는 것이 규칙이었다. 흡사 일제강점기 말기에 각급 학교에서 한글 사용을 금지하면서 우리말을 쓰면 본인에게 체벌과 함께 각종 벌을 주었고, 학부모까지 학교에까지 오게 해 문

책했던 일을 상기시킨다.

복거일의 『영어를 공용어로 삼자』에는 이런 내용도 나온다. ‘세계성(globality)의 시대’에 정보의 교류를 막는 언어 장벽을 낮추어, 그런 장벽으로 인해 우리가 보는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리가 있는 말이다. 그는 또 영어 공용화의 결과, 사업이나 관광을 위해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들이 영어만 써도 별다른 불편을 느끼지 못하도록 하고, 우리 사회와 문화를 더 잘 이해하고 우리 국민에게 호감을 갖게 되면 좋은 일이 아니냐고 말했다. 일리가 있는 말이지만 영어 공용화는 우리말을 웬만하면 쓰지 말자는 것과 같은 뜻이다. 부경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김영환 교수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외국어 숭배 풍조는 우리 민족에게 뿌리가 깊다. 신라 때 당나라를 숭배하면서 중국어를 숭배하고 우리말은 방언이라 한 게 그 시초요, 고려와 조선을 거치면서 깊게 박힌 중화사상 숭배 풍조가 일제 식민지 때 일본 말 숭배가 되고, 오늘날 영어 숭배로 이어지고 있다. 신라 때부터 조선 시대까지 중국어를 공용어로 하자는 자가 있었고, 일제강점기 때는 일본어를 공용어로 했고, 오늘날엔 영어를 공용어로 하려는 자들이 판친다.<sup>3)</sup>

한자문화권에 속해 있는 우리나라는 한자가 모국어나 마찬가지로였다. 말은 중국어와 분명히 다른 한국어였지만 글자는 한자를 오래 2천 년은 족히 썼었다. 일제강점기는 우리말을 잃고 산 시기였다. 특히 1938년 3월 15일을 기해 발표한 ‘고쿠고조요(國語常用)’ 정책은 우리말과 글을 교육과정에서 빼앗아간 정책이었고 태평양전쟁이 본격화되는 1942년부터는 ‘국어전해(全解) 운동’을 펼쳤다. (여기서 국어는 일본어다.) 조선인을 징병과 징용으로 끌고 가 써먹으려고 일본어를 잘하는 ‘황국신민’을 만들기 위해서였다. 광복 이후 시작된 미군정시기, 그리고 한국전쟁과 이후 미군의 주둔, 1953년 10월 1일 조인된 한미상호방위조약은 미국에 대한 의존도를 계속해서 높이게 했다. 그래서 한글날의 국경일 부여와 한글을 사랑하는 행사가 무위로 돌아가는 일이 될 수 있는 것이다.

### 3. 관공서의 영어 사랑

복거일의 주장이 빛을 본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김영삼 정부 시절부터 우리나라 모든 관공서의 사이트가 영어로 도배가 되기 시작했다. 서울특별시청 사이트에 들어가보면 한글은 산산조각이 나 있다. 우리가 우리말을 얼마나 홀대하고 있는지는 인터넷에 관공서 이름을 쳐보면 바로 알 수 있다. 서울특별시를 쳐보면 상단에 서비스 맵·마이서울·모바일서울·라이브서울·전자우편·로그인·NEW스토리인서울, 이렇게 일곱 개가 떠 있었는데 지금은 누군가의 건의를 받아들여졌는지 서울소식·시민참여·분야별정보·서울소개·부서안내·정보공개·응답소로 바뀌었다.

서울시 에코마일리지 에너지 게임·커넥티드 드라이빙 서비스·서울시 에너지 정보 플랫폼 해커톤 참여자 모집·서울로 미디어캔버스 애니메이션 공모·우리 동네 키움 포털·서울형 뉴딜 일자리·휴먼시티 디자인 어워드……. 한글은 간간이 보이고 거의 다 한자어와

3) 2009년 11월 29일, 한말글문화협회 정책토론회에서 영어 문제에 대해 주제발표를 한 부경대 김영환 교수의 말.

영어가 뒤섞여 있다. 아마도 관공서에서 쓰는 용어의 90% 이상이 이렇듯 한자와 영어일 것이다. 한글이 우수한 문자라고 우리가 아무리 주장해도 소용없다. 우리의 삶 안에 속속 들어와 있는 영어를 이렇게 애지중지 쓴다면 ‘세계한글작가대회’ 같은 행사를 매년 열어본들 시민들은 체감하지 못하고 ‘쇠귀에 경 읽기’가 될 것이다.

쌀 생산이 자급자족이 안 되자 혼·분식을 강조했던 시절이 있었다. 지금이 바로 한글과 영어와 한자를 뒤섞어 쓰는 언어의 혼·분식 시대이다. 정부의 부서 이름을 보라. 지금은 없어진 부서도 있는데 부서명이 다 이런 식이었다. 국가브랜드위원회·다산콜센터·한국콘텐츠진흥위원회·문화콘텐츠산업실·게임콘텐츠산업과·디지털콘텐츠과·영상콘텐츠과·디자인공간문화과·미디어정책국·미디어정책과·홍보콘텐츠기획과·뉴미디어홍보과…….

국어기본법 제14조(공문서등의 작성·평가) 1항에 따르면 “공공기관 등은 공문서 등을 일반 국민이 알기 쉬운 용어와 문장으로 써야 하며, 어문 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 또는 다른 외국 글자를 쓸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다. 그러나 많은 관공서는 오히려 외래어와 외국어를 남용하며, 국어기본법의 조항을 분명하게 위반하고 있다. 앞장서 한글 사용을 독려해야 할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이 법을 어기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조치는 ‘개선 권고’ 수준이기에, 획기적인 변화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표 21] 중앙행정기관 공공언어 평가 결과 종합 순위표

기관명	날달수	외국어 표기 위반어	한글표기위반어	합계	1000날달당 쓰인 평균빈도
1 중소기업벤처부	4,652	106	553	659	141.66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895	196	478	674	137.69
3 산업통상자원부	4,833	186	463	649	134.29
4 새만금개발청	1,698	18	187	203	119.55
5 특허청	5,226	248	376	624	119.40
6 방송통신위원회	2,722	45	258	303	111.82
7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5,059	84	472	556	109.90
8 국토교통부	6,093	92	544	636	104.38
9 관세청	2,779	97	177	274	98.60
10 기획재정부	6,827	129	544	673	98.58

**중간 생략**

37 국민권익위원회	4,518	18	264	282	62.42
38 소방청	3,478	46	171	217	62.39
39 원자력안전위원회	796	0	47	47	59.05
40 국가인권위원회	11,785	48	638	686	58.21
41 법제처	3,372	7	185	192	56.94
42 통일부	2,294	23	104	127	55.38
43 법무부	5,688	20	236	256	45.02
총합계	191,035	2772	13391	16163	84.61

NEWSIS

[그림 4] 정부 부처 및 기관 국어기본법 위반 빈도수 (2020, 한말글문화협회)

실제로 한글학회 부설 ‘한말글문화협회’가 정부 부처·청·위원회 등 43곳의 주요 문서를 수집해 분석한 ‘2020년 공공문서 사용실태 조사 보고서’를 발표한 결과에서 어문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외국어 표기 위반 및 한글표기 위반 건수를 종합 평가한 결과 ▲중소기업벤처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순으로 위반 빈도가 높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살펴보면 AI·SW 교육·TF팀 등의 단어가 있는데, 과연 이 단어를 사용할 때 해당 담당자와 부서가 국어기

본법 조항에 맞추려는 깊은 고민을 하였는지 되묻고 싶다.

서울특별시의 담당관 이름을 보자. 디자인기획담당관·WDC담당관·마케팅담당관·뉴미디어담당관·공공디자인담당관·정보화시스템담당관·유시티추진담당관·비전전략담당관·에너지정책담당관·클린도시담당관·동대문디자인파크담당관·남산르네상스담당관·뉴타운사업담당관……(이 부분은 ‘리대로의 한말글 사랑 한마당’에서 가져옴).

전에는 대단히 우스꽝스러운 우리말 오용의 예를 보고 허탈한 웃음을 짓곤 했는데 요즘에는 잘 안 보여서 그나마 다행이다. 코로나 사태 이전, 버스나 전철역에 부착된 ‘일어서自!’, 서울도시철도공사의 광고문에 게재된 ‘중소소UP’, 서울동물원의 ‘스타夜놀자!’ 동대문구가 중랑천에 내건 ‘중랑천愛 놀자’ 등 말을 지어낸 이는 스스로 재치있다고 생각했겠지만 실은 우리말을 욕보이는 말놀음이다.

지난 몇 년 동안 지하철이나 거리에서 보았던 희망 플러스 통장·한강 르네상스 프로젝트·클린 재정·서울 비전 체계·시민 패트롤·서울 사랑 커뮤니티·서울리뉴얼·비전 갤러리·그린 트러스트·하이서울 리포트·서울메트로 모니터·시니어 패스·하이서울 페스티벌·천만상상 오아시스·서비스 매뉴얼·비전 서울 핵심 프로젝트·희망 드림 프로젝트·시민행복 업그레이드·클린 운영·서울형 데이터케어 센터 등도 영어 사랑의 산물이다. 최근에 읽은 화면 기사 중에 “온라인 신청방법은 아이사랑보육보털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하고 온라인 개인정보 활용 동의 후 어린이집을 선택해 입소 대기 신청을 하면 된다.”가 있다. 한글은 그저 조사(助詞) 역할만 하고 있을 따름이다.

2022년 9월 현재 경기도 사이트에 들어가 살펴보았다. 민원 신고를 할 부서 중 ‘경기도 헬프라인’과 ‘건설업페이퍼컴퍼니’는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 ‘디지털 저장매체 파기 서비스 안내’도 이름만으로는 뜻을 모르겠다. 이런 글을 보았다. “경기도일자리재단 일자리플랫폼 ‘잡아바’입니다. 잡아바 기업회원 이용 메뉴얼 가이드가 업데이트되었습니다. 사이트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문장은 그래도 이해가 가능하다. ‘잡아바’는 아마도 ‘Job아바’에서 가져온 말일 것이다. 그나마 귀엽다고 해야 할까.

그래도 다행인 것은 이러한 상황이 ‘잘못됐다’고 인식하고, 개선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이다. 서울시교육청은 ‘바르고 쉬운 행정용어 연구회’를 운영하고, 경기도 등은 ‘공공언어 바르게 쓰기’ 등 경기도 국어문화진흥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광주시 또한 전남대 국어문화원에 ‘공공언어 개선을 위한 공문서 실태 조사’를 맡기는 등의 시도를 하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근본적으로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구성원들이 한글 사용의 중요성을 깨닫고 스스로 책임감을 느껴야 된다고 본다.

‘공공언어 바르게 쓰기 교육’에 따르면 공공언어를 바르게 쓰는 이유에 대하여 ▲공공기관과 국민 사이의 원활한 의사소통 ▲어려운 정책 용어를 이해하지 못한 국민이 혜택을 받지 못하여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 ▲공공언어는 언어생활의 모범과 기준이 되는 역할 등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는 한글이 단순한 글자, 그 이상의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려준다. 대한민국의 고유한 글자이기에 우리나라 사람들 모두가 쉽게 이해할 수 있고, 불필요한 오해나 불통을 방지할 수 있다는 큰 이점을 가지기 때문이다.

프로야구 구단이 10개인데 한글로 표기하는 곳이 5개이고 영어로 표기하는 곳이 5개이다. 두산·롯데·삼성·키움·한화와 LG·KIA·KT·NC·SSG이다. KT나 KB 등 기업명을 영어 두 문자로 쓰는 것이 일반화되어 이제는 아무 거부감 없이 받아들여지게 된다. 국민은행보다 KB를 더 쓰고 있다. 영어의 공용화 주장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이렇게 영

어를 일상적으로 쓰고 있다. 한글 논문에도 이제는 ‘필요’ 대신에 한글로 ‘니즈’라고 쓰고 있다. 한글이 최고라고 아무리 자랑해본들 무슨 소용이 있는가. 일제가 우리 성과 이름을 일본식으로 강제로 바꾸게 한 창씨개명은 ‘강제로’ 한 것이었지만 오늘날 한국 공기업과 재벌들은 스스로 우리말 이름을 버리고 영어 이름으로 바꾸고 있다.

거리의 간판은 말할 것도 없다. 아파트 이름도 가게 이름도 외래어 일색이다. 아파트 이름치고 한글로만 되어 있는 것은 거의 없다. 래미안슈르아파트와 롯데캐슬아르떼아파트를 예로 든다. ‘슈르’는 ‘surréalisme’의 ‘sur’일 텐데, 이런 불어를 왜 썼는지는 알 수 없다. ‘城’이란 뜻의 ‘castle’을 왜 넣은 것일까? ‘아르떼(Arte)’는 프랑스의 방송국 이름인데 왜 들어가 있는지 알 수 없다. 외국 선호사상이 외래어 숭배사상으로 이어졌다고 여겨진다.

이와 같이 현상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어떨까? 재작년에 문화체육관광부와 사단법인 국어문화원연합회에서 1천명을 대상으로 공동 조사한 결과 아파트 이름을 우리말로 개선하는 것에 대해 ‘동의한다’는 의견이 전체의 66.4%로 나타났다. 국어학과 국문학에 종사하는 이들뿐 아니라, 일반 대중들도 외래어로 가득 차 가는 현실을 탐탁지 않게 바라보는 것이다.

그러나 이를 세부적으로 분석해보면 우려되는 문제가 존재한다. 첫 번째로 아파트 이름을 직접 결정할 경우의 선택을 묻자, 20대에서는 우리말 이름의 아파트를 뽑은 비율이 32%였지만 60대에는 72.4%에 달하였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아직’까지는 대중이 전반적으로 외래어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젊은 층들은 외래어와 외국어를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기에 시간이 흘러 세대교체가 이루어지면 우리말과 외래어를 바라보는 관념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는 영어·외국어 아파트명을 더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 이유(복수 선택 가능)에 대하여 58%의 설문 대상자가 ‘아파트가 외국어 이름이면 세련되어 보인다’고 말하였으며, 54%는 ‘고급스럽다’라고 응답하였다. 그러다 보니 신축 아파트의 경우, 세련된 느낌을 주기 위해 그 이름을 지을 때 서구 쪽 언어를 빌려 쓰게 되는 것이다.

지금의 젊은이들이 태어나고, 자라고, 살아온 시대는 외국어와 외래어가 만연한 세상이었다. 순우리말보다는 외래어나 외국어 표현이 더욱 익숙한 이들은 ‘왜’ 한국어로 바꾸어야 하는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심지어 외래어를 쓰면 세련되고 우리말을 쓰면 촌스럽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왕왕 있다. 몇십 년 후 이러한 젊은이들이 중년층이 되고, 이들의 자녀 세대가 다시 젊은 층이 될 때, 그때 한글은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

#### 4. 한국인의 일본어 사랑

지인들과 맥주잔을 높이 들고 잔을 부딪치면서 외치는 구호가 주로 ‘건배!’였는데 언제부터인가 한 사람이 ‘건배!’라고 외치면 나머지 사람들이 ‘리모콘!’ 하고 외치고 있다. ‘나도!’라는 우리말을 두고 왜 ‘리모콘!’ 하고 외치게 된 것일까? 우리가 텔레비전 채널을 돌릴 때 사용하는 기기를 가리켜 ‘리모콘’이라고 쓰고 있는데, 사실 일본식 표기다. 이 기기의 원래 이름은 리모트 콘트롤러(remote control)인데 너무 길어 이렇게 쓰지 않더라도 ‘리모컨’이라고 써야지 원어에 조금 가까운 것이고, ‘리모콘’이라고 하면 일본식 영어를 쓰는 것이다. 그런데 왜 술잔을 부딪치며 우리가 ‘리모콘!’ 하고 외치게 된 것일까? ‘re’가 ‘다시’라는 뜻



이 있어서일 거라고 짐작해본다.



[그림 5]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관련 조사 및 내용

(2020, 법제처; 2017, 리스피아르 조사연구소)

앞서 영어를 중심으로 한 외래어와 외국어가 우리 사회에 널리 퍼져있다는 사실을 살펴봤다. 그런데 영어만큼 우리나라 곳곳에 숨어있는 외래어가 또 하나 있다. 바로 일본어다. 인접해 있다는 지리적 요건, 일제강점기 35년이라는 역사적 요인 등의 이유로 일본어에 바탕을 둔 외래어가 각종 상황에서 나타나고 있다. 일제 35년이 지난 지 한참이 되었는데도 여전히 쓰이고 있다는 사실이 안타까울 따름이다.

영어가 일상생활에 주로 쓰인다면, 일본식 표현이나 일본식 외래어는 법령·조항·보고서 등 공적 문서에서 자주 발견된다. 2020년 10월 8일자 문화일보는 헌법 조문에조차 어색하거나 부정확한 표현 10곳, 일본용어·일본식 표현 32곳, 불필요한 한자어 21곳 등 총 63곳에 ‘엉터리 국어’가 사용됐다고 말했다. 헌법뿐 아니라 민법·형법과 같은 법전 곳곳에는 어려운 표현들이 가득한데, 이는 일본 등의 외국 법전 내용을 그대로 모방한 것이다. 이러한 법률 용어는 일반인들에게는 해석조차도 어렵게 느껴지기 마련이다. 이에 법제처는 2006년부터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벌이고 일본식 외래어 법조문 용어를 개정하고 있다. 올바른 우리말로 변화하고자 하는 의지는 바람직하지만, 그 속도가 다소 느리다는 점은 아쉽기 이를 데 없다.

지금도 무심코 쓰고 있는 일본식 영어로는 도란스·레미콘·만땅·맘모스·메리야스·미싱·백미러·바케스·빠꾸·빵꾸·빼빼·뽕끼·빼라·스덴·엑기스·오바·조끼·츄리닝 등등 너무나 많다. 일제강점기에서 벗어난 지 77년이 되었지만 우리는 지금도 일상생활에서 일본어화한 영어를 쓰고 있다. 이들 말을 한글로 바꿔보면 변압기·양회반죽(차)·가득채움·매머드(대형)·속옷·재봉틀·뒷거울·양동이(들통)·후진(뒤로)·구멍(망침)·사포·페인트·전단(전단지)·스테인리스(녹막이)·농축액(진액)·외투·운동복(연습복)이라고 쓰고 있는가?

아직도 쓰고 있는 순일본어는 또 얼마나 많은가. 가오·고바이·기마이·꼬붕·기스·다라이·단도리·도비라·땡깡·몸빼·무데뽕·센베이·시다·쓰끼다시·아나고·앗싸리·오뎅·와사비·요깡·우와기·유도리·찌라시·함바·히야시를 아직도 쓰고 있다. 이들을 체

면·오르막(비탈)·선심(한턱 냄)·종(부하)·흠(상처)·함지박·채비(단속)·속표지·생떼·일바지·막무가내·전병과자·조수·기본안주·붕장어·시원스럽게·어묵·고추냉이·단팔묵·윗저고리(상의)·여유·광고쪽지·현장식당·차계 함이라고 고쳐 쓰고 있는가? 고쳐 쓰려고 노력은 해본 적이 있는가? 우리는 다진 고기를 뜻하는 'たなき'에서 온 다대기라고는 쓰지만 다진 양념이라고 쓰지는 않는다. 분배나 할당의 순우리말인 노느매기라고는 아무도 쓰지 않고, 종종 분빠이라고 쓴다.

일본식 한자어도 정말 많다. 가봉·가처분·각서·거래선·건폐율·검침원·견습·견적·견출지·결석계·고수부지·고참·공장도 가격·구좌·결석재판·기라성·납기·납득·내역·노임·담합·대금·대절·대합실·도합·매물·매상고·명도·부락·부지·불하를 일제강점기가 없었더라면 시침질·임시처분·약정서·거래처·대지건물비율·계량기조사원·수습·추산(어림셈)·찾음표·결석(근)신고서·둔치·선임자·공장 값·계좌·결석재판·빛나는 별·기한(내는 날)·이해·명세·폼삐·짬짜미·값(돈)·전세·기다림방·모두(합계)·팔 것·판매액·내어줌(넘겨줌)·마을·터·매각(팔아넘김)으로 썼을 것이다. 우리가 쓰는 한자어 중에 정말 많은 것들이 중국에서는 쓴 적이 없는, 일본에서 만들어진 한자어임을 모르고 쓰고 있다.<sup>4)</sup> 지금에 와서 건폐율을 대지건물비율로, 검침원을 계량기조사원으로 쓸 수는 없다. 그래서 수많은 한자어가 일본에서 만들어진 것이니 순우리말로 바꿔 쓰자는 주장은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 하지만 이런 낱말들이 일본에서 만들어진 것임은 알고 있어야 하지 않을까. 또 우리말로 바꿔 쓸 수 없나 연구해야 하지 않을까.

나루터를 대신한 선착장, 싫증나다와 물리다를 대신한 식상(食傷)하다도 일본식 한자어다. 애창곡 대신에 즐겨 쓰는 18번이란 말도 일본에서 온 것이다. 17세기 때 일본 가부키 배우 중 이치가와 단주로라는 사람이 가문에 내려오던 막간극 중 18가지 기예를 정리해 애창하자 18번이란 말이 생겨났다. 이 가운데 18번째 것이 가장 재미있어 관중들이 연호해서 생겨난 말이라는 설도 있다. 우리 중 누가 유희지를 노는 땅이라 쓰고 있는가. 림프샘을 일본들이 자기네들 발음으로 고쳐 부른 임파선(淋巴腺)을 우리는 중국서 온 한자로 알고 쓴다. 우리는 '처지'나 '태도' 혹은 '조건'을 썼는데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입장'이란 말을 쓰게 되었다. 기존의 한자어를 일본식 한자어가 이긴 경우다. 누가 행선지를 대신해 '갈 곳'이라고 쓰고 있는가. '몫'이라는 좋은 우리말을 두고 일본식 한자어인 '지분'을 쓰고 있다. 일본의 신사(神社)에서 하던 전통적인 행사인 마쓰리를 '祝祭'로 표기했는데 우리는 잔치나 모꼬지를 버리고 이 한자어를 쓰고 있다. 다루다나 처리하다를 버리고 취급하다를 쓰고 있다. 이런 식으로 악화가 양화를 좇아낸 예가 너무나 많다.

## 5. 해외교포들의 한글 사랑

해외에서 교포들이 내고 있는 문예지들을 보면 대체로 우리말을 아껴 쓰려고 노력하고 있다. 카자흐스탄 알마티의 『고려문화』, 연변의 『연변문학』 『도라지』 『장백산』, 미국의 『미주문학』 『미주한국소설』 『미주펜문학』 『뉴욕문학』, 캐나다의 『캐나다문학』 등에 실린 한글 작품을 보면 먼 이역에서 사는 교포들의 작품에서 우리말의 향기를 맡고 사투리의 멋을 느낄 수 있다.

4) 이상 내용은 박숙희, 『우리말 속 일본말』(한울림, 1996)에서 가져옴.

재일 조선인 작가 중 아쿠타가와상 수상 작가가 이회성·이양지·유미리·현월 등 4명인데 그 가운데 이회성과 이양지와 유미리는 일본에서 귀화하지 않은 조선인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가를, 모국어를 제대로 모르는 데서 오는 괴로움이 얼마나 큰가를 작품의 주된 소재 혹은 주제로 삼았다. 이런 때, 한글로 시를 쓰는 이 땅의 시인들은 모국어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을까? 최근에 어느 재미 교포 시인이 필자에게 원고 뭉치 하나를 보내 왔다. 고국에서 시집을 내고 싶다면서 안면이 있는 내게 부탁을 해온 것이었는데, 한 편 한 편 읽어보다가 적잖은 충격을 받았다. 미국으로 이민 간 지 26년이 된 이분의 시 속에 낯선 우리말이 상당수 나와 국어대사전을 옆에 놓고 일일이 찾아보며 뜻 확인을 해야만 했기 때문이다.

느침 : 끈적끈적하고 길게 흐르는 침.

뜯기 : 채 익지 않은 과실.

수통하다 : 부끄럽고 분하다.

괘란쩍다 : 행동이 건방지거나 주재넘다.

사발허통 : 주위가 막힌 곳이 없이 행하게 터져 매우 허전함.

언죽번죽 : 조금도 부끄러워하는 기색이 없고 비위가 좋아 뻥뻥한 모양.

어리마리 : 잠이 든 등 만 듯한 모양.

들떼리다 : 남의 감정을 건드려 덧나게 하다.

주니 : ①몹시 지루함을 느끼는 싫증. ②두렵거나 확고한 자신이 없어서 내키지 아니하는 마음.

눈모시 : 잣물에 담갔다가 솔에 짜 내어 빗갈이 하얀 모시. 백저(白苧).

밑절미 : 사물의 기초가 되는, 본디부터 있던 부분.

즈렁바위 : 험하게 겹쌓인 큰 바위.

깃둥이 : 몸을 놀리는 모양새를 낫잡는 뜻으로 이르는 말.

겨끔내기 : 어떤 일을 번갈아 하는 상태.

더뻑 : 앞뒤를 헤아리지 않고 마구 행동하는 모양.

도사리 : 자라는 도중에 떨어진 과실. 낙과.

물한년하다 : 햇수에 제한이 없다. 영원하다.

던적스럽다 : 아주 치사하고 더러운 데가 있다.

담치기 : 질서 없이 함부로 덤벼드는 짓. 또는, 생각 없이 덮어놓고 하는 짓.

몽동발이 : 팔려 붙었던 것이 다 떨어지고 몸뚱이만 남아 있는 물건.

좃추다 : 켜 동작으로 잇달아 재촉하다.

앤생이 : 잔약한 사람이나 보잘것없는 물건.

더그매 : 지붕과 천장 사이의 공간.

이분이 쓰는 우리말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지 않을까. 어릴 때부터 예사롭게 써서 자연스럽게 입말이 된 우리말과 국어대사전을 옆에 두고 살면서 의도적으로 시어로 골라서 쓴 우리말. 이 두 종류가 있겠는데 위의 23개 우리말 중 20개 정도는 거의 사어가 된 것이다. 시집 원고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나는 이분이 미국에 가서 시를 쓰면서(젊어서는 먹고사는 일에 정신이 없어 시를 쓰지 못했다) 모국어를 살려서 시를 쓰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했음을 알 수 있었다. 시집 해설을 써드리기로 했음은 물론이다.

외교부에서 발간한 2021년 판 『외교백서』를 보면 2019년에 조사한 해외 교민의 수가 나

와 있다. 총 749만 3,587명이다. 조사에서 빠진 사람들이 있음을 감안한다면 대략 '800만 교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에 가장 많은 255만이 살고 있고 중국에 246만이, 일본에 80만 5천이 살고 있다. 유럽에 69만이, 호주와 뉴질랜드 포함 태평양 지역에 59만이, 중남미에 10만이, 중동에 2만 5천이, 아프리카에 1만이 살고 있다. 중앙아시아 지역은 통계에서 빠져 있다. 고려인들은 5세대를 내려오는 동안 구소련의 철저한 현지 복속 정책 때문에 교민으로 보기에 어려움이 있어서일까? 확인해봐야 할 사항이다.

왕조 시대와 구한말에 이미 만주와 연해주로의 이주가 시작되었다. 기근을 못 견뎌, 탐관오리의 학정을 못 이겨, 죄를 지었기에 국경을 넘어간 사람들이 있었고, 일제강점기에는 독립운동가들이 만주와 상해로 가서 광복을 꿈꾸었다. 강점기 말기에는 일본으로 간 조선인 수가 200만에 달했다. 강제징용으로 끌려가 있던 노동자 28만이 포함되어 있었지만.

스탈린이 1937년에 블라디보스토크와 하바롭스크에 살고 있는 조선인 18만 명을 중앙아시아의 허허벌판으로 이주시켰으니 그 유명한 '고려인 강제이주'다. 스탈린은 일본이 러시아 극동지역을 침략할지 모른다고 예단, 이 지역 조선인이 화근이 될지 모른다고 생각해 90회 이상 수송열차에 실어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 등지에 짐짝처럼 풀어놓았다. 당국은 집을 마련해주지도 않았다. 한겨울에 토굴을 파고 살았는데 이들의 후손이 고려인이다. 한국전쟁 이후로는 미국으로, 베트남전쟁 이후로는 호주로 우리 교민이 대거 이주하여 삶의 터전을 이루었다.

연구자로서 다년간 해외동포들이 쓴 문학작품을 보고 있는데 몇 가지 공통점이 있다. 교포 1세대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창작의 원동력이라는 것이다. 그들은 추석이나 설날이 되면 눈물을 글썽이며 달을 본다. 또 하나는 현지어 습득 과정에서 세대 간의 갈등이 불거진다는 것이다. 성인이 되어 이민을 간 1세대는 현지어 습득이 쉽지 않다. 한국에서 유년기를 보내고 온 1.5세대는 학교에 다니면서 빨리 현지에 적응한다. 현지에서 태어난 2세대는 부모나 조부모의 각고의 노력이 없으면 한국어를 할 줄 모른다. 말은 몇 마디 해도 글은 쓸 줄 모른다. 호주 한호일보 신춘문에 시상식장에서 할아버지가 아들과는 한국어로, 손자와는 영어로 대화하는 것을 보고 비애를 느꼈던 적이 있다.

호주 교민이 이런 말을 해준다. 초등학교 3학년 때 온 큰애는 우리말을 곧잘 하는데 1학년 때 온 아이는 말을 잘 못한다고. 일기를 한글로 역지로 쓰게 했는데 두 애 다 힘들다고 얼마 못 가 포기하더라고. 그런데 교민들은 모국어로 작품을 쓰고 있었다. 이들이 애국심에 충만하여, 향수를 담아 쓴 작품을 본국에서는 외면해 왔다. 나는 '그들만의 리그'인 교민의 작품을 보고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수준 향상을 위해 조언도 해주었다. 이제는 국내 문단의 주목을 받을 작품을 쓸 때가 되었다고. 이들의 모국어 사랑이 눈물겨웠다. 어머니의 품을 잇을 수 없어 글을 열심히 쓰고 있는 것이다.

## 6. 한글을 지키기 위하여

지난 20년 동안 한류 바람이 거세게 불어 세계 각국에서 한글을 배우려는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 K팝 가수나 젊은 연예인들에게 열광하는 외국의 젊은이들이 노래를 따라 부르고, 한국어를 배우려고 하고, 한국 관광에 나서기도 한다. 이런 것이 다 한국어를 세계에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다. 또한 우리 문학을 세계에 널리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

이기도 하다. 외국인에게 한글 교육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동화와 동시가, 소설과 시가 소개될 수는 없는 것일까? 물론 일부 사용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한국문학에 대한 소개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순위	인원	제목	순위	인원	제목
1	350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 장 지글러	11	197	데미안 헤르만 헤세
2	336	침묵의 봄 레이첼 카슨	12	182	팩트폴니스 한스 로슬링, 올라 로슬링, 안나 로슬링 원문드
3	295	멋진 신세계 올더스 헉슬리	13	176	페스트 알베르 카뮈
4	261	미움받을 용기 기시미 이치로, 고가 후미타케	14	171	아픔이 길이 되려면 김승섭
5	253	정의란 무엇인가 마이클 샌델	15	155	충군쇠 재레드 다이아몬드
6	250	이기적 유전자 리처드 도킨스	16	138	부분과 전체 베르너 하이젠베르크
7	223	사피엔스 유발 하라리	17	135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 마이클 샌델
8	216	엔트로피 제레미 리프킨	18	125	연금술사 파울로 코엘료
9	205	1984 조지 오웰	19	122	변신 프란츠 카프카
10	203	죽은 시인의 사회 N. H. 클라인바움	20	122	수레바퀴 아래서 헤르만 헤세

[그림 6] 2021학년도 서울대 수시 지원자들의 단과대별 많이 읽은 책  
(2021, 서울대 웹진 '아로리')

매년 대학 입시가 끝나면 청소년 자녀를 둔 학부모들이 궁금해하는 질문이 있다. “서울대에 지원한 학생들이 읽은 책은 뭘까?”라는 질문이다. 그런데 서울대 입학본부가 낸 자료에 따르면 재작년도 기준으로 1위부터 20위까지 한국 서적은 한 권에 불과했다. 김승섭의 『아픔이 길이 되려면』이다. 그 외는 전부 외국 작가의 책이다. 물론 모두 훌륭한 작품이지만, 한 권을 제외하고 모두 외국 작품이라는 것은 씁쓸하기 그지없다. 이는 문예창작학과나 국어국문학과와 같이 한국어와 한국문학에 대해 배우는 학생들도 크게 다르지 않다.

문예창작학과에 입학한 학생들에게 지금까지 읽은 모든 소설 가운데 가장 감명 깊게 읽은 것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며 소설의 제목은 다를지라도 반드시 들어가는 일본인 작가가 2명 있다. 무라카미 하루키와 히가시노 게이고다. 이 땅의 김동리와 황순원 혹은 황석영, 이문열, 조정래, 박완서, 이청준 등이 쓴 소설을 거론하는 학생은 한 명도 없었다. 참으로 슬픈 현실이다.



[그림 7] 영미권 넘어 日에서도 흐름 탄 K문학... 번역가 키우면 지구촌 대세[인사이드&인사이드] (2020, 동아일보)

한국문학은 그 자체가 한류 콘텐츠로서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 손원평의 『아몬드』 등 여러 작가의 작품이 세계 무대에서 인정받고 있고, 다수의 해외 문학상을 받기도 했다. 불과 10년 전만 하더라도 해외에서 주목받지 못한 한국 문학이라는 점을 고려해본다면 놀라운 성과이다. 한글로 쓰는, 한국의 독특한 정서를 담은 이야기가 세계에서도 공감과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K-POP’, ‘K-드라마’에 이어 ‘K-문학’이 나타날 수 있다는 기대가 한껏 든다. 지금이야말로 한글과 한국어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고 대내외로 활발하게 알리기 위해 노력해야 할 때가 아닌가.

우리의 의식구조 안에는 오랫동안 중국이 상국(上國)이었는데 이제는 미국이 상국이라는 생각이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은 아닐까? 외국인들을 맞이해 식사를 제공하는 ‘윤스테이’라는 프로에서 배우 윤여정이 영어를 구사하는데, 우리 마음속에는 ‘아, 윤여정이 참 똑똑하구나’ 하는 생각이 떠오른다면, 그 생각의 근원은 무엇일까. ‘저 정도 영어는 할 줄 알아야 하는데’라는 생각이 잘못된 것은 아니다. 우리가 영어를 잘해야 한다는 생각이 잘못된 것은 절대로 아니다. 문제는 한글을 촌스럽다, 열등하다고 생각하는 데 있다. 손흥민 선수의 영어 실력을 당연히 칭찬해주어야 한다. 하지만 말끝마다 무조건 ‘~하는 것 같다.’로 쓰는 잘못된 우리말 습관을 고쳐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다. 한글이 아시아의 한 귀퉁이에 있는 작은 나라의 언어라고 하여 자격지심을 갖지 말아야 한다. 열등감을 떨쳐버려야 한다. 지인 한 사람이 KECPO란 영자로 되어 있는 우편물을 받아보니 전기 요금 고지서였다고 말한다. ‘한국전력공사’란 이름이 있는데 이렇게 바꿔 쓰고 있는 것이다.

대체 영어가 무엇인가? 외국말 가운데 하나일 뿐이다. 옛날 우리가 중국의 지배를 받을 때 중국에 조공을 바쳐야 했고, 공자왈 맹자왈 하면서 한문을 모국어인 양 배워야 했다. 일본의 식민지였을 때 일본말을 잘해서 일제의 충성하는 친일파들이 있다. 그런데 이제는 영어를 숭배하고 있다. 학교에서 과학이나 의학뿐 아니라 국문학과 역사학까지 영어로 강의한 것이 김영삼·김대중·이명박 정부 때의 일이었다.

이처럼 언어사대주의가 ‘학문사대주의’로까지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에 한 명의 학자로서 걱정이 크다. 특히 경제학·경영학과 같은 상경계열 학문의 경우, 세부계열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영미권 학풍을 지니고 있다. 주요한 이론·담론·학자들이 외국에 기

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젊은 연구자들 역시 외국의 기존 연구에 의존하는 경향을 떨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는 외국 학문에 의존하고 치우쳐지는 형태로 나타나며, 그들의 연구에서도 외래어·외국어가 속출하는 모습을 목격할 수 있다. 앞서 ▲중소기업벤처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순으로 한글 표기 위반이 나타났다고 하였는데, 이 중 중소기업벤처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대표적인 상경계열 학문이다.

그러나 학문을 연구하는 이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이론과 개념을 창조적으로 수립하는 일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한국의 문화·정서·사회 등을 고려해서 새로운 지식과 자료를 창출해내는 일은 학계에 있어 뜻깊은 일이 될 것이다. 이는 문예창작학과와 국어국문학과 같은 인문계열, 경영학과나 경제학과 같은 상경계열뿐 아니라 이공계열·예체능계열·융합학문 등 학계 전반에 해당하는 말이기도 하다. 언어는 그 언어를 사랑하고, 아끼며,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생명이 유지될 수 있다. 이제는 모국어인 한글에 대한 사랑을 우리 스스로, 알아서 하는 일이 되기를 바란다.